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가을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진 적은 처음입니다. 올여름은 홋카이도 답지 않게 유난히 더웠고, 체감 온도가 무려 40도를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측 사상 최초의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올림픽은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제가 올 여름에 문득 깨달은 사실은, 이곳에서는 여름에 매미 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밤 중에도 매미소리가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삿포로에는 산에서도 매미가 잘 안보인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호제휴 5주년 기념 청년 성악가 교류

치바 에이미 (홋카이도) 정호진 (제주)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우호제휴 5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없게 된 관계로, 작년부터 양국간의 회의를 비롯한 국제교류 활동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두 지역의 청년 성악가 교류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제주도 출신 성악가 정호진(바리톤)씨와 홋카이도 교육대학 이와미자와캠퍼스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치바 에이미(소프라노)씨가 10월 10일 제주에서 개최된 탐라문화제에서 한국과 일본 양국민들에게 친숙한 가요인 '눈의 꽃(雪の華)'을 듀엣으로 선보였습니다. 해당 공연은 홋카이도에서 사전 촬영된 공연 영상에 라이브를 가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연수

금년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할 5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사전연수를 진행 중입니다. 포럼은 작년과 동일하게 11월 1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자들은 3일 동안 타 지역의 참가자들과 함께 전세계 공통과제인 '평화, 환경, 교육, 건강' 등을 테마로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지 기대됩니다.

도쿄올림픽2020 개최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도쿄올림픽 2020이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삿포로 시내에서도 8월 5일부터 8일까지 경보와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홋카이도는 여름철에도 기후가 선선하기 때문에 육상경기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지만, 예상과는 달리 올림픽 기간 중 무더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하여 출발 시간을 앞당겨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삿포로 산책 -라벤더를 찾아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올여름에는 홋카이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장거리 여행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분 전환을 위해 삿포로 시내에서 라벤더를 볼 수 있는 장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호로미 고개'에 위치한 라벤더원과 '히츠지가오카 전망대'의 라벤더 밭입니다.

홋카이도의 대표 관광지라고도 할 수 있는 후라노의 팜토미타 라벤더 밭처럼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두 곳 모두 삿포로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로미 고개 라벤더원

▲히츠지가오카 전망대 풍경

'히츠지가오카 전망대'는 '양의 언덕'이라는 명칭처럼 들판에서 쉬고 있는 양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저는 이 언덕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푸른 하늘이 마음에 들어 가끔 이곳을 방문합니다.

마침 7월에는 기간 한정으로 정원에서 라벤더 수확을 해볼 수 있는 체험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참여해 보았습니다. 라벤더 밭에는 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좀 무서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름철에 길가에 핀 보라색 꽃들이 전부 라벤더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라벤더 수확 체험을 해보며 이제는 라벤더 꽃을 구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호로미 고개'는 이번 여름에 새롭게 알게된 장소입니다.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홋카이도신궁, 마루야마 동물원, 삿포로올림픽 뮤지엄, 오쿠라야마 점프경기장 등 주요 관광지들을 거치게 됩니다. 하차 후 15분정도 산을 올라가면 라벤더 언덕이 나옵니다.

▲호로미 고개에서 내려다 본 삿포로 시내

호로미 고개는 여름 느낌이 나는 라벤더 밭과 함께 삿포로 시내 풍경도 구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야경도 매우 멋지다고 하니 기회가 된다면 또 와보고 싶습니다!

일본의 복날, 일본의 추석

한국에서는 매년 세 번의 복날을 지내지만, 일본의 복날에 해당하는 '도요노우시노히'는 해마다 날짜도 횟수도 달라집니다. 올해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름에 맞이하는 복날은 원기를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장어 도시락 사전주문 카탈로그가 전시되곤 하며, 복날이 가까워지면 마트 수산물 코너가 장어로 가득찬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기력 충전을 위해 삼계탕이나 치킨 등 닭요리를 주로 먹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복날 메인메뉴는 장어 요리입니다. 하지만 장어가 저렴한 음식은 아니다보니 장어구이 모양을 재현한 어묵이나 고등어 양념구이도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팥고물을 묻힌 떡을 먹기도 합니다.

한편, '오봉'이라 불리는 일본의 추석은 일반적으로 양력 8월 13일부터 16일까지이며, 홋카이도에서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서서히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도 오봉 기간에는 귀성과 성묘를 하는 등, 하는 일은 한국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 기간이 공식적인 연휴가 아니기 때문에 빨간날 표시가 없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야생 곰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오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성묘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음식들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가도록 방송에서 당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음력 8월 15일은 일본에서 '중추의 명월', '십오야'라고 불립니다. 한국처럼 쉬는 날은 아니지만, 달맞이를 하는 풍습은 한국과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날과 관련하여 9월 중에 펼쳐지는 '츠키미(달 구경)' 마케팅이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달처럼 동그란 경단, 노란색 화과자, 달걀 노른자를 띄운 메밀국수 등 '보름달'의 상징이 들어간 음식들을 가게에서 팔기 시작하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들도 기간 한정으로 계란후라이가 들어간 햄버거를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